

함께 만들어 가는 기적

GSM 1:1 동역선교 이야기

머리말

선교는 거창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에 바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교는 나와는 먼 이야기야."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니다, 너 또한 나의 선교사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선교'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고, 선교사님들의 감동적인 간증도 접했지만, 정작 '나도 선교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에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변변찮고, 말주변도 없을뿐더러, 멀리 해외에 나갈 용기도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 GSM의 이야기

GSM(선한목자선교회) 한눈에 보기

- 설립연도: 2002년
- 창립자: 故 황선규 목사
- 핵심 사역: 1:1 동역선교
- 현재 규모: 110개국, 1,000명+ 선교사
- 구조: 전방-후방-중간 선교사 협력
- 특징: 개인 대 개인의 (1:1 동역) 기도와 후원

2002년, 한 노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목자선교회(GSM)'의 시작이었습니다. GSM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훈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신 전방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후원자를 찾아 1:1로 결연해 동역하게 하는 브릿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 복음의 최전선에서 뛰는 전방 선교사
- 묵묵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후방 선교사
-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간 선교사(간사)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GSM은 선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갑니다. "선교는 혼자서는 달을 수 없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한 이야기

한 후원자가 선교 대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낯선 만남이었지만, 선교사님은 그 후원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오랫동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기도해주셨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후원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그분에게는 그토록 큰 힘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1 동역선교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마음과 정성,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선교 현장에서 '기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도 그 기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뜨거운 선교 현장에서 흘린 눈물,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얻은 위로,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줄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작은 사랑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분명한 고백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조용히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기도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이 말씀이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자 소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제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위대한 명령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문화, 때로는 버거운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이 말씀은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민자의 삶과 목회

미국에서의 40여 년의 삶은 이민자들의 고독과 어려움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인 이질감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땀 흘려 생계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신학을 공부했고, 개척교회와 세인트루이스에서 담임목사로서 총 25년간 이민 목회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헌신했습니다.

GSM과의 만남

그러던 중, 2017년, 저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방을 섬겨온 선한목자선교회(GSM)의 사무총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3일 고 황선규 선교사님으로부터 국제대표직을 위임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사역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드러 GSM의 초석을 놓으신 故 황선규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의 정신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분의 삶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1:1 동역선교"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교 패러다임을 통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인사

이민 목회의 여정부터 **GSM** 선교회를 섬기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 신실한 동역자 이현 사무총장, 한국지부와 미국 본부의 헌신적인 스태프들, 그리고 **GSM**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너희는 가서"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1장.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는 선교 이야기다.” — 존 스토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분은 그것으로 역사를 만드신다.” — 마더 테레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지금, 나에게 ‘선교’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크고 멀게만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아프리카 오지나 히말라야 산맥 너머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복음의 일을 함께 감당해보지 않겠니?"

이 부드러운 초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선교는 종종 눈물 속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결단이나 웅장한 선언문이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으로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뚫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와 이름 없는 땀방울로 말입니다.

****선한목자선교회(Good Shepherd Mission, GSM)****도 바로 그런 눈물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기다린 여정.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부터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 마디는 단순히 한 개인의 행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선교 역사의 웅장한 서막이었죠.

성경 전체를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민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시는 놀라운 드라마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방을 향해 뛰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심장박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할 때가 아닐까요?

깊은 상실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소망: **GSM**의 따뜻한 시작

2002년 여름, 미국 시애틀의 작은 집. 그곳에서 故 황선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시 황 목사는 목회를 은퇴한 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70세의 나이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죠. 누가 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그가 드린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님, 남은 생애 단 하루라도 열방을 위한 기도와 사역에 쓰이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삶을 연장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완전한 행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며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교”, 특별히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였죠.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지신 기적의 증인입니다. 저처럼 병약한 자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만든 기적,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황부희 사모님이었습니다.

황 사모님은 연약한 황 목사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며, 식사와 치료는 물론 선교의 여정까지 함께 감당했습니다. 두 분은 하루하루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황 목사는 처음에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랍게도 20년으로 연장해 주셨어요. 재혼이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더 큰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열방을 품는 사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귀한 20년 동안, 두 분은 단 6명의 선교사와 11명의 후원자로 시작된 **GSM**을 통해 놀라운 사역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작은 집이 선교본부가 되다

황선규 목사님과 황부희 사모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쳐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원자들을 동원하는 선교 후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을 1:1로 결연시키는 사역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황 목사의 집은 자연스럽게 “**GSM** 선교본부”가 되었습니다. 황부희 사모님은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며, 사랑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 1:1 동역선교의 본질

이러한 헌신을 통해 **GSM**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선교사들에게는 든든한 동역자를 연결해 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단 6명의 선교사와 11명의 후원자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는 숫자로만 보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어요. 기도와 사랑으로 촘촘히 연결된 “1:1 동역”이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매달 편지를 보내며 격려합시다.” “복음을 위한 삼겹줄이 됩시다.”

이 단순하지만 진실한 고백이 **GSM 1:1 동역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화려한 조직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GSM**이 추구하는 선교의 가장 깊은 본질이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110개국, 1,000명**이 넘는 선교사와 연결된 국제 선교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든 사람

황 목사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GSM 국제 대표직을 김경식 목사에게 위임하며 후배에게 귀한 바통을 넘긴 후에도, 마지막 숨이 멎기 직전까지도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한 명이라도 더 연결해 주세요”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그는 그렇게 사모하시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안위나 가족을 걱정하는 대신, 아직 연결되지 않은 선교사들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간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에 심긴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고,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생명력이 아름답게 꽃피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 나는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다시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 제 인생에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 제가 경험한 고난과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황선규 목사님의 헌신처럼 저도 제 삶의 작은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조차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거름이 되게 하시고, 제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끈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선교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실천

이번 주, 다음 과제들을 실천해 보세요:

- ‘선교’ 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노트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을 위해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 내 일상 속에서 ‘선교적 순종’이 될 수 있는 3가지 작은 행동을 적어보고 실천해 보세요.

제 2장. 선교, 함께 쓰는 이야기: 전방, 후방, 중간 선교사의 동행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른 자리에 두시고, 하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 존 파이퍼

시작하며: 선교는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복음은 혼자 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 후원, 그리고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선교는 거대한 '팀워크'입니다. 마치 한 몸의 지체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충실히 감당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선한목자선교회(GSM)는 이러한 성경적 동역의 원리를 현실에 구현하여, '전방 선교사 - 후방 후원자 - 중간 선교사'라는 삼겹줄 같은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구조를 넘어,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의 방식입니다.

GSM의 삼겹줄 선교 구조: 세 가지 역할, 하나의 사명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전방 선교사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 씨앗을 뿌리는 이들
후방 후원자	기도와 재정으로 복음의 전진을 돕는 이들
중간 선교사	전방과 후방 사이를 연결하며 소통의 다리를 놓는 이들

이 관계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지지하며, 함께 전진하는 영적 공동체의 방식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모두가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중간 선교사: 복음의 물줄기를 잇는 보급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복음의 물줄기

중간 선교사는 전방의 최전선과 후방의 풍부한 자원을 연결하는 생명과도 같은 '보급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100%** 자비량으로 헌신하며 자신의 귀한 시간, 차량,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기꺼이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뛰어난 장군과 용감한 병사도 싸움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선교사는 후원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편지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1:1로 결연된 후원자와 선교사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간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전쟁터 최전선에는 없지만,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물줄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 복음의 흐름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증: 밤늦도록 이어지는 섬김

GSM의 한 간사님은 수많은 선교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메일, 변경된 선교지 정보, 복잡한 재정 확인, 급박한 기도 요청... 이 모든 것을 밤늦도록 꼼꼼하게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때로는 수고가 많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않지만, 선교사님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그들의 눈물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제게는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이처럼 중간 선교사는 선교 현장의 다양한 필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후방의 자원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간사들 덕분에 GSM의 1:1 동역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방의 사랑이 전방의 용기가 되다

가족이 함께하는 선교 교육

한 후원자 가정은 매달 아이들과 함께 결연된 선교사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합니다. 아이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고,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방의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복음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방 선교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가족의 존재만으로 저는 매일 용기를 얻습니다. 매달 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편지 한 장이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후원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선교사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과 믿음을 담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후원금 뒤에는 이처럼 깊은 영적 동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방의 눈물이 후방의 기도가 되다

긴박했던 예배 현장: 한 선교사의 기도 요청

어느 날 밤, 한 선교사가 다급하게 본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긴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큰 방해를 받고 물리적인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도 상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뿐입니다.”

선교사의 이 간절한 외침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최전선에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 동역의 삼겹줄

이 긴급한 기도는 곧 **GSM**의 중보기도방과 그룹 단톡방에 즉시 공유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후원자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드러지는 간절한 기도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수습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전방 선교사는 다시금 담대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방 선교사의 눈물과 긴급한 요청은 중간 선교사를 통해 후방 후원자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다시 전방 선교사에게 기적과 같은 힘이 되어 사역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GSM** 삼겹줄 동역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간사: 연결의 신실한 다리

50명을 관리하는 세심함

GSM의 한 간사님은 한 달에 50명 이상의 선교사와 후원자 사이의 모든 소통을 관리합니다. 선교지의 변경된 소식, 응급 상황, 병원비 요청, 정기적인 선교 보고 등 작은 것 하나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고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각 선교사의 사역 상황을 깊이 파악하고, 각 후원자의 관심사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둘 사이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선교사의 아픈 소식을 후원자에게 전해야 하고, 때로는 후원자의 어려운 상황을 선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쉽지 않은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간사의 세심함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조용한 다리의 철학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다리를 놓을 뿐입니다. 그 위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기적적인 동역이 온전히 지나가게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이처럼 중간 선교사는 꼼꼼한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통해 전방과 후방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돕는 신실한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주목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겸손한 섬김의 자세가 돋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전방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방 선교사는 낯선 언어를 배우고, 타문화에 적응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후방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뒷받침하며

후방 후원자는 매달 정성스럽게 준비한 후원금을 보내고, 결연된 선교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때로는 가족과 함께 선교지를 공부하며 깊은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헌신이 없다면 전방의 사역은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으며

중간 선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연결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방과 후방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수고가 없다면 전방과 후방 사이의 소통은 단절되고, 삼겹줄 동역의 아름다운 조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 **GSM의 1:1** 동역 선교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묵상과 적용

개인 점검 질문:

- 나는 지금 선교의 어떤 역할에 서 있는가?
 -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방 선교사”인가?
 - 기도와 재정으로 보내는 “후방 후원자”인가?
 - 전방과 후방을 잇는 “중간 선교사(간사)”인가?

이 세 가지 역할 모두 귀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섬기느냐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전방을 향한 후방의 기도와 헌신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제게 맡기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선교의 조화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이번 주 실천 과제:

- 내가 현재 선교의 어떤 역할에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기
- 나와 결연된 후원자 또는 선교사에게 오늘 진심을 담은 한 줄 편지(문자)를 써 보기
- 혹시 GSM의 간사로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 문자를 보내 보기
- 전방-후방-중간이라는 삼겹줄 선교 개념을 교회 소그룹이나 가족과 함께 나눠 보기
- 우리 교회의 선교 구조를 GSM의 삼겹줄 모델과 비교해 보고, 적용할 점을 찾아 보기

제 3 장. 고난 속에 피어난 헌신: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선교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 엘리자베스 엘리엇

시작하며: 눈물 없이 피는 복음은 없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헌신과 열정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외로움, 질병, 재정난, 자녀 문제, 문화 충돌... 선교의 길은 수많은 고난과의 씨름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곧 복음이 뿌리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여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헌신을 함께 나눕니다.

부르심과 현실 사이의 긴장: 선교지의 다면적인 어려움

복음을 들고 떠나는 길은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현실은 험난합니다. 낯선 땅의 언어 장벽은 소통을 어렵게 하고, 익숙한 문화와의 충돌은 끊임없는 긴장과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감정적 고립감은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경제적 불안정은 사역을 위협합니다. **GSM**은 이런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자를 1:1로 결연하여 동역하도록 돕습니다. 중동 지역의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매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상상하지만, 사실 하루 대부분은 언어 공부에 지치고, 문화적 오해로 마음 아파하며, 사역 중단에 대한 불안감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후원자들과의 동역으로 예상치 못한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따뜻한 연대의 손길: 고통 속의 위로

-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겪는 선교사님께: 시애틀의 한 장로님은 타국에서 어린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깊이 애통했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어 위로하며 조의금을 전달했고, 슬픔에 잠긴 선교사님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익명으로 헌금을 보내왔던 이 장로님의 조용한 헌신은, 이번에도 큰 위로가 되어 절망에 빠져 있던 선교사님의 마음에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 질병과 싸우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중남미의 한 선교사님은 오랜 사역 끝에 현지 풍토병에 감염되어 입원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병원 침대 위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 육신은 병들었지만,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멀리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름 모를 후원자님들이 있다는 믿음이 제 사역의 가장 큰 연료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회복 후 사역지로 돌아가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그 지역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인도 선교지의 비극적인 사건: 인도 가지야바드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해 온 마수드(가명) 목사님은 최근 지역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준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지역 청년 라시드가 극심한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라시드는 무슬림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의 누나는 예수님을 믿는 현지 청년과 교제 중이어서 이 사건은 가족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수드 목사님은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인도 젊은이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가정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한 기회가 되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선교지는 종종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은 분명히 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따뜻한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타향에서의 또 다른 짐: 자녀 교육의 눈물

낮선 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입니다. 동유럽으로 파송된 한 선교사는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냈지만, 아이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정체성 혼란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렵게 후원자에게 편지를 보내 어려움과 함께 간절한 부탁을 전했습니다. “물질적 후원도 감사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는 매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진심으로 기도했고, 몇 달 후 선교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후원자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아이들의 마음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묵상: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사도 바울은 고난 가득한 사역의 여정을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걷는 길 또한 이 말씀의 생생한 실체입니다. 그들은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동역의 아름다운 실천

선교사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 곁에는 함께 울고, 기도하며, 지지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 간사: 때로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하며, 끊임없이 중보 기도와 필요한 연결의 다리를 놓는 헌신된 섬김입니다.
- 후원자: 진심 어린 기도와 따뜻한 격려 메시지,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은 멀리 떨어진 선교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간증: 편지 한 통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

사역의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던 한 선교사는 후원자들에게 힘든 상황을 편지로 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 비록 존함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향한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는 짧지만 따뜻한 격려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그는 그 후원자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그 짧은 한 문장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바로 당신이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 묵상과 적용

- 나는 선교사님들이 겪는 고난의 깊이를 얼마나 헤아리고 있나요?
- 그들의 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경험이 있나요?

- 나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께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 하나님은 나를 선교의 어떤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선교사님들의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기도의 손이 되어, 위로의 진실한 입술이 되어, 필요한 후원의 발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오늘, 마음이 끌리는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짧은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 오늘 하루 그 제목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조용히 작은 정성을 모아 선교지에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제 4장. 마음과 마음을 잇는 특별한 만남: 1:1 동역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관계 안에서 이뤄집니다.” — 헨리 마틴

시작하며: 복음은 사람 사이를 걷습니다.

선교는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관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이나 설교만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한 사람의 손길, 한 줄의 편지, 한 번의 기도를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GSM**이 추구하는 ‘1:1 동역선교’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를 가장 단순하고도 진실하게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1:1 동역, 그 시작과 의미

GSM의 사역은 단순히 후원 모금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선교사 한 명, 후원자 한 명
- 서로의 이름을 알고
- 기도제목을 나누며
- 삶을 함께 살아내는 동행

1:1 동역은 단순한 재정적 후원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선교의 본질”**입니다.

1:1 동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결연 신청:** **GSM** 후원 행사, 홈페이지, 지인의 권면 또는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여 **GSM**에 제출합니다.
- **선교사 정보 공유:** **GSM**은 후원을 기다리는 선교사님과 후원자를 **1:1**로 연결하여, 후원자에게 해당 선교사님의 사역 정보와 기도 제목 등을 전달합니다.
- **후원금 전달:** 후원 약정에 따라 매월 **10일**, **GSM**은 후원금을 확인하여 선교사님의 현지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 **정기적인 교제:** 결연된 선교사님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이상, 후원자에게 직접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을 담아 소식을 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 **평생 동역:** 이러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1:1 동역**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발전하여,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평생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어느 선교대회에서, 처음으로 동역 선교사를 만난 후원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낯선 얼굴이었지만, 선교사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기도해주셨다는 그 한 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후원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생명이었네요.”

간증: 아이들과 함께 결연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은 초등학교 두 아이와 함께 결연된 선교사님의 나라를 공부하고, 사진을 붙이고, 매달 생일 카드와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매일 기도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선교사는 울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사역의 연료입니다.”

관계는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보는 이메일로, 재정은 송금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며, 그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1:1 동역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입니다.

성경 묵상: 바울과 디모데, 롯과 나오미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지 사역 파트너가 아니라, 삶과 마음을 나누는 깊은 ***영적 친밀감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롯과 나오미의 관계도 동역의 본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동역은 곧 함께하는 삶이자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간증: 후원자와 선교사의 서로 다른 시선

어느 후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매달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 한 줄 이름을 보며 그날의 사역을 견뎌줍니다. 이분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생명입니다.” 후원자는 자신의 후원이 “그 정도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라고 고백합니다. 1:1 동역은 후원자와 선교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복음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선교사는 늘 질문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후원자는 때때로 묻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간사는 그 사이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1:1 동역은 서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 선교사는 외롭지 않고
- 후원자는 사역을 함께 체험하며
- 간사는 기도의 다리로 존재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 묵상과 적용

-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 내가 결연한 선교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 내 삶에서 1:1 동역의 감동을 경험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복음이 관계 안에서 흘러가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선교사님 한 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과 고난 속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름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결연 선교사의 이름을 적고 3일 동안 매일 기도해보기
- 감사 편지 혹은 간단한 메시지 전송하기
- 가족 또는 소그룹과 함께 그 선교사의 나라/사역 알아보기
- 매달 기도노트에 동역 선교사를 위한 공간 만들기
- 다른 사람도 1:1 동역에 초대해보기

제 5 장. 사랑의 다리를 놓은 사람들: 중간 선교사

“가장 큰 사랑은 조용히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 프란시스 웨퍼

시작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사랑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후방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보내는 후원자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 선교사**입니다. 이들을 보통 **간사**라고 부르지만, 그 존재는 단순한 행정 담당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100%**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영적 통로이자, 복음의 연결자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의 다리 놓는 자들입니다.

중간 선교사의 하루: 묵묵히 이어가는 연결

새벽, 선교사님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현지에 전쟁이 났습니다.

후원자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간사는 곧장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각 후원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중간에는 후원 중단 문의, 헌금 변경 요청, 감사 편지 후원자에게 전달, 병원비를 위한 특별 헌금 송금까지...

하루 종일, 그들은 수많은 영적 요청과 현실의 흐름을 묵묵히 조율하며 전방과 후방을 굳건히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역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간증: 후원자도 울고, 간사도 울다 – 마음을 움직이는 연대

한 간사님은 어느 날 후원 중단을 요청한 후원자와 힘겹게 통화했습니다. 성령님의 간절함이 간사님의 목소리를 떨게 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제발... 중단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선교사님께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참 침묵하던 후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소중한 연결고리인지 깨달았습니다.” 간사님은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건 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생명의 다리가 되었고, 후원자에게는 동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전쟁터, 그리고 헌신된 군수 수송대

중간 선교사는 전방과 후방 사이의 군수물자 수송대와 같습니다. 전선에 탄약이 없으면 전사는 무너지고, 사랑과 지원이 끊기면 사역은 지쳐 쓰러집니다. 중간 선교사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라는 연료, 후원이라는 양식, 격려라는 위로를 전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보급이 늦거나 끊기면 사역자들은 때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렇기에 중간 선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전선 밖의 든든한 전사입니다.

비유: 중간 선교사는 복음의 해석자 – 마음을 잇는 통역

간사는 “해석자”이기도 합니다. 선교사의 때로는 어렵고 생소한 언어를 후원자의 익숙한 언어로 바꾸고, 후원자의 피상적인 관심을 선교사의 구체적인 필요로 연결합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통역자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은 감정과 의미를 세심하게 살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경 속 중간 선교사들: 신실한 연결의 본보기

- **느헤미야:** 직접 성벽을 쌓는 일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으고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동원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중간 리더였습니다.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여러 지역 교회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소식을 전하고 협력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이자 연결의 다리였습니다.
- **디도:** 바울의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각 교회의 신뢰를 얻으며 위기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다리를 놓는 자”의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중간 선교사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간증: 편지 하나로 복음을 지킨 간사 – 작은 헌신의 큰 울림

GSM의 한 간사님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다양한 선교 편지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밤늦도록 정성을 다해 일일이 답신을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GSM 중보기도방에 올려 후원자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간사의 따뜻한 답신을 받은 한 지친 선교사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 한 장의 진심 어린 편지가 무너져 내리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역에 헌신할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정성과 노력이 누군가의 사역을 지탱하고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묵상: 나는 누구의 다리입니까?

- 선교사와 후원자 사이
- 선교 본부와 지역 교회 사이
- 기도자와 현장 사이
- 낯선 마음과 따뜻한 사랑 사이

우리 모두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누군가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묵상과 적용

-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자리에 서 있나요?
- 중간에서 묵묵히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 내 주변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나 격려를 표현한 적이 있나요?
- 나도 나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연결자, 따뜻한 해석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겸손한 섬김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끊임없이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소서. 선교는 묵묵히 다리를 놓는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내가 아는 간사님이나 묵묵히 섬기는 사역자 한 분을 위해 5분 이상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후원자와 선교사님을 연결하는 따뜻한 격려의 연락이나 메시지를 실천해 보세요.
- 간사 사역자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 편지나 작은 선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중간 선교사'의 헌신적인 필요와 그들의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 6 장. 함께라서 더욱 아름다운: 1:1 동역 선교의 힘

“복음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 — 허드슨 테일러

시작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선교

복음은 원래부터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는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걸으며 사역하셨습니다. GSM의 1:1 동역선교는 바로 그 “함께함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함께함이 주는 힘: 전방과 후방의 연합

한 GSM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있는 선교지만이 세상의 땅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GSM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동료 선교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나의 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 그는 자신이 후원받은 일부를 다른 선교사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정적 필요를 돕고, 선교 경험과 자료, 전략까지도 함께 나누며 진정한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시편 133편의 말씀이 GSM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만드는 기적'의 힘입니다.

“함께함”은 선교의 전선과 후방이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사는 전선에서 복음을 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전방의 군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전방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와 재정, 사랑으로 뒷받침하는 후방의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전쟁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함**은 전방과 후방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우는 연합된 군대가 바로 교회요, 선교의 동역입니다.

간증: 호텔을 운영하는 장로님의 특별한 동역

GSM 후방선교사들은 단지 1:1 후원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 호텔을 운영하는 장로님 부부는 매년 6월, GSM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특별한 헌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호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과 해외 참석자들이 공항 도착 첫날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기꺼이 숙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러한 헌신은 단지 공간의 제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후방에서 조용히 돕는 손길들이 있기에, GSM의 다양한 선교 행사와 동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증: 소그룹 동역의 기적

GSM과 결연한 한 교회 소그룹은 해외 선교사 한 명을 선정하여 매달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일을 챙기고, 선물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 지도를 그려보며 온 가족이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동역**이 선교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성경 속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

- 바울과 바나바: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운 진짜 동역자
-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의 위기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믿음을 지킨 전우
- 다윗과 요나단: 목숨 걸고 함께 했던 우정과 믿음

하나님은 늘 “둘 이상”을 통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혼자가 아닐 때, 복음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간증: GSM 기도회에서 만난 새로운 동역자

시애틀에서 열리는 GSM 세계 중보기도회.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길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 목사님. 몸이 아픈 날도, 쓰러질 만큼 피곤한 날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기도회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교현장입니다.” 그의 말에 기도회에 함께하던 다른 분도 도전받고 후방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함’**은 도전을 낳고, 새로운 동역자를 일으킵니다.

때로 함께하기 어렵지만...

물론 “함께” 라는 단어는 때로 불협화음, 충돌, 다름의 도전도 포함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문화적 오해, 후원자와 선교사 사이의 기대 차이, 정보 전달의 왜곡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중간 선교사(간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조율자”이자 중재자”로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세워갑니다.

진짜 동역이란, 눈물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증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게 동역이더라고요.” 동역은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까지 나눌 때, 그 관계는 하나님의 연합이 됩니다.

선교사에게 마중물이 된 **GSM 후원자**: 송 선교사는 중국에서 28년을 열심히 사역하다 추방당했습니다. 그가 GSM 선교 후원 행사에서 간증합니다.

“청춘을 다 바쳐 중국 선교하고 추방당한 후, 새로운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에 선교를 후원해 주던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저를 1:1로 결연하여 후원해준 GSM 후원자의 후원이 마중물이 되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묵상과 적용

- 나는 지금 누구와 복음을 함께하고 있나요?
- 혼자 사역하려는 마음은 없었나요?
- 누군가의 사역에 함께 걷는 자로 설 수 있다면, 누구일까요?
- 나는 연합과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나 혼자 선교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고, 동역자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연합과 사랑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오늘 한 명의 동역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
- 내가 연결된 공동체와 선교사 이름을 함께 기도하며 불러보기
- ‘혼자가 아닌 선교’에 대해 친구나 소그룹에서 나눠보기
- 선교사님과 후원자, 중간 간사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기

제 7 장. 작은 헌신이 만드는 큰 기적: 감동적인 후원 이야기

“나는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 마더 테레사

시작하며: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작고 소박한 헌신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진 작은 정성은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고, 외로운 선교사에게 다시 희망을 주며,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간증: 한 권사님의 3만 원이 만든 기적

한 권사님은 매달 3만 원씩 후원해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겐 작아 보일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 정성으로 선교사 자녀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번 달은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작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셨군요.”

간증: 80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80세 권사님의 딸은 의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 선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굴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딸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애끓는 기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 현실이 되었고, 딸은 선교사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치과 병원은 점차 확장되어 이제는 5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뤄낸 기적. 이 이야기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망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기도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헌신의 아름다운 확장: 다양한 섬김의 손길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여동생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오빠가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국 방문 시 편안히 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에 그녀는 GSM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한 빌라 두 채를 선뜻 선교관으로 제공하는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후원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가정의 애경사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직접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낯선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GSM의 첫 시작부터 20년 이상을 중간 선교사(간사)로 섬기고 있는 한국지부의 사무국장은, 한국 GSM 선교회의 행정과 기도모임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개방하고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GSM의 모든 간사 스태프들은 100% 자원함으로 자신의 시간과 은사를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 덕분에 후원금 전액이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GSM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도 열방으로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흐름에 함께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묵상과 적용

- 나는 작다고 생각해 지나쳤던 헌신이 있었나요?
- 지금 나의 시간과 은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요? (물질, 재능, 공간, 관계 등)
- 주변의 조용한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추어진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실천

-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 하나 정해 보기 (예: 기도, 격려 메시지, 재능 나눔 등)
- 간사나 중보자 등 조용히 섬기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
- '작은 정성'이 만든 기적 사례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헌신의 의미 되새기기

제 8 장. 가장 가까운 선교지, 우리 가정

“가정은 선교의 훈련장이다.” — 조지 뮐러

시작하며: 선교는 먼 곳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선교를 멀고 낯선 나라에서의 사역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길 바라십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자, 기도를 배우고, 용서와 인내를 실습하는 믿음의 첫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자녀는 복음을 보고 배우며, 배우자는 서로 복음으로 세워갑니다.

복음이 숨 쉬는 일상: 가정이라는 선교지

아침밥을 차리는 손길, 학교 가는 아이의 뒷모습, 늦은 밤 가족이 모여 드리는 짧은 기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실천이며 선교의 연장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감사의 이유를 나누고, 선교지 소식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간증: 함께 걷는 가정, 함께 섬기는 선교

한 장로님은 치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매일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집은 밖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권유로 자녀들도 1:1 동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제 온 가족이 20명의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선교지 편지를 읽고, 가족 기도문을 쓰며 나누는 삶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복음의 중심에 세우는 기쁨’이라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유산: 믿음과 선교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학교, 안정된 삶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값진 유산이라 말합니다. 한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 손주들과 함께 각국 선교사님들의 국기를 그리며 나라별 기도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주는 말합니다. “나중에 커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 다음 세대의 동역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가정 중심 선교의 본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을 교회로 열고 바울을 섬긴 부부
- 노아의 가족: 함께 방주를 만들며 믿음을 이어간 가정
- 사무엘과 한나: 기도로 낳고 기도로 보내는 신앙의 전수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선교의 출발지로 삼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가정 선교

GSM에서는 종종 “가족 결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가족 단위로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며 가정 전체가 하나의 선교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가정 안에 선한 긴장과 은혜의 기쁨이 넘칩니다.

가장 가까운 선교지, 가장 어려운 선교지

가정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선교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교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신앙의 깊이 차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 또는 선교에 대한

무관심은 갈등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사랑입니다.

- 강요보다 모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실천은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따뜻한 말, 겸손한 태도, 일관된 신앙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 기도의 지속성: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 공감과 대화의 연결: 신앙을 주제로 한 대화보다는, 평소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작은 연결고리 활용: 가정 예배, 함께 보는 신앙 영화, 축복의 문자 메시지 등은 부담 없이 마음을 잇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 선교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더딜 수 있으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오늘부터 선교지

- 하루 5분, 선교사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 가족 예배에 선교편지 함께 읽기
- 결연 후원에 가족이 공동 참여하기
- 선교지 음식 만들기, 선교 국가 공부하기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실현되는 가장 실제적인 선교입니다.

☞ 묵상과 적용

- 나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 자녀에게 믿음과 선교의 본을 보이고 있나요?
- 우리 가정이 선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주님, 저의 가정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소서. 이 집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믿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퍼지게 하소서. 자녀가 복음을 보고 자라며 배우자와 함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가족 구성원과 함께 선교지 하나 정하고 중보 기도해보기
- 가정 예배에 선교지를 위한 기도 항목 한 가지 추가해보기
- 어린 자녀와 선교사 이름 불러주며 매일 한 문장 기도하기
- 다음 세대에 신앙과 선교의 유산 남길 수 있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 정하기

제 9 장. 교회가 살아나는 길 – 공동체와 함께하는 선교,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이다." — 데이빗 보쉬

시작하며: 선교는 교회를 뛰게 하는 심장 박동입니다

교회는 낡은 건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쿵광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 때, 사랑의 피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듯 복음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날, 멈춘 듯 답답한 숨을 쉬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잠자던 심장은 다시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그분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숨결

선교적 교회는 몇몇 열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 모든 성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에너지가 선교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 뜨거운 가슴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넘어, 선교사와 손잡고 함께 걷는 교회,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속 심장이 뛰는 교회들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선교의 맥박이 힘차게 요동칠 때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심장이 뛰는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안디옥교회: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출한 선교사를 세상으로 힘차게 내보내고, 그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꾸준히 응원했던 든든한 심장이었습니다.
- 빌립보교회: 어려운 형편에도 아낌없이 마음을 담은 후원을 보내고,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이었습니다.
- 예루살렘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뜨겁게 연합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로 힘을 얻었던, 복음의 능력을 준비했던 심장이었습니다.

간증: 150개의 심장이 함께 뛰는 교회 – 대구 동행교회

대구에는 **GSM**과 손잡고 교회 전체가 **1:1** 동역선교라는 아름다운 심장으로 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1** 동역선교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후, 모든 교인 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함께 뛰는 '선교 중심적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두근거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예배, 기도, 교육, 소그룹 모임 등 모든 순간에 생명의 활력이 넘실거립니다. 특히 매년 가을, **GSM**과 함께하는 선교 축제는 온 성도들에게 선교의 꿈을 다시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해마다 새로운 가정이 선교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심장(가정)****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동행교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회가 선교라는 심장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변화 – 함께 뛰는 심장의 리듬

선교라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 예배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름들을 부르며 함께 중보하는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 미래의 주역인 유년부와 청년부 아이들은 결연된 선교사님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됩니다.
- 소그룹 모임에서는 각 가정이 품은 선교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나누어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낸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라는 유기체 전체의 DNA가 선교적으로 재조립되는 감동적인 역사였습니다.

간증: 목회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한 교회 목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선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고. "성도들 먹고살기도 힘든데, 선교까지 하자고 하면 너무 버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1:1로 연결된 후원자와 선교사님의 진솔한 편지 교환과 따뜻한 기도 교제를 지켜보면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즉 선교할 때였구나!"

그 후, 그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메시지가 깊이 녹아들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심장이 선교로 뛰기 시작하자, 교회 전체가 함께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세상을 향해 뛸 수 있습니다

선교는 거대한 조직이나 넘치는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GSM에는 단 20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작은 개척교회도 매달 한 선교사님과 마음을 나누고, 정성껏 쓴 격려 편지와 따뜻한 영상 기도문을 보내며 놀라운 동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재정은 적지만,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누구보다 큼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강물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는 선교의 문턱이 높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과 작은 헌신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선교의 심장이 되다

미국의 한 한인 이민교회는 온 교인들의 심장에 '선교 DNA'를 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교회 리더십들이 1:1로 결연된 선교사님과 줌 화상 통화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또한, 교회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깊어지고, 그 결과 온 교회가 선교적인 열정으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처럼 현지 선교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단순한 이민자 공동체를 넘어 열방을 품는 선교의 심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개인 점검 질문:

- 우리 교회의 심장은 지금 세상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서 있나요?
- 나는 그 심장의 박동에 어떤 리듬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 우리 교회의 예배, 교육, 공동체 모임 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되게 하소서. 사명에 잠든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 헌신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선교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며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복음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실천

이번 주 실천 과제:

-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와 관련된 작은 모임이나 프로젝트에 마음을 열고 참여해 보세요.
- 공동체 예배 시간에 결연된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감동적인 선교 간증을 찾아 듣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경험하세요.
-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제10 장. 기도로 함께 걷는 동행, 영혼을 엮는 끈

"기도 없는 선교는 엔진 없는 배와 같다." — 허드슨 테일러

시작하며: 기도는 선교의 심장 박동, 멈추지 않는 사랑의 숨결

많은 이들이 '선교'를 떠올릴 때, 지도의 낯선 땅이나 통장의 잔고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외침은 언제나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선교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선교사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연대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속 가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선교사를 굳건히 지키는 갑옷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간증: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해요."

시애틀의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GSM** 단톡방에 올라온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숨결이 담긴 기도 제목들을 정성스럽게 손으로 옮겨 적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소중히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권사님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물질은 부족하지만, 제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강력한 후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골방 기도는,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을 든든하게 에워싸는 영적인 방패가 되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선교사의 사역에 실질적인 힘을 불어넣는 멈추지 않는 사랑의 숨결입니다.

중보기도, 물질 후원을 넘어선 영혼의 끈

GSM은 단순한 재정 후원을 넘어, 영혼과 영혼을 잇는 '기도 결연'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때로는 끊어질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닿는 한 멈추지 않는 영원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끈은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이 되어 줍니다. 기도를 통해 맺어진 영혼의 끈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를 붙들어 주는 가장 든든한 동역이 됩니다.

간증: 투석의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 김 목사님

신장의 고통과 싸우며 힘겨운 투석 치료를 받으시는 은퇴 목회자 김 목사님. 그분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스스로 운전하여 **GSM** 세계중보기도회에 어김없이 참석하십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힘없이 쓰러지셨지만, 그분의 입술에서는 변함없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게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저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피로, 때로는 엄습하는 외로움과 힘겨운 하루 속에서도, 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여전히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헌신과 중보의 거룩한 숨결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GSM** 세계중보기도회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지는 기도는 선교사들에게 실제적인 평안과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선교지를 움직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그날은 격렬한 폭력 시위 때문에 도저히 거리로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공격당할 것처럼 험악한 상황이었고 모든 것이 멈춰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날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님들이 간절히 함께 기도해주신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은 깊은 우울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하던 중, 후원자님의 따뜻한 기도 편지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후원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선교지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멈춰 섰던 사역을 다시 이어가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동력입니다.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 속 기도와 선교, 함께 엮어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도와 선교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기도가 선교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금식 기도로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동역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동역자들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달 **GSM** 세계중보기도회에 참석한 후에도, 기도 제목 리스트를 소중히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가 그 내용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선교사역의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묵상: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지에 보내는 영적인 발걸음이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 지금,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교사님의 얼굴이 있나요?
-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기도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 나의 기도 노트 한 페이지에는 선교사님의 나라와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나요?

💬 묵상과 적용

개인 점검 질문:

-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 내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최근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알고 있나요?
- 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의 끈을 엮어갈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 오늘의 기도

주님, 제 기도를 사용하여 메마른 선교지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게 하소서.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을 걷는 이들의 눈물을, 제 간절한 무릎의 기도로 닦아주소서. 기도하는 두 손이 가장 강력한 동역의 손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이번 주 실천 과제:

- 나만의 기도 노트를 마련하여,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외의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사역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을 할애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 가족이나 소그룹 안에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GSM이나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세요.

제 11 장. 오늘의 순종, 놀라운 변화의 씨앗

"하나님은 능력이 아닌 순종을 쓰십니다." — 어니스트 굿

시작하며: 선교는 오늘의 작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저 멀리 낯선 땅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의 작은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슈퍼 히어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네"라고 응답할 용기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라는 환상, 붙잡아야 할 '지금'

"언젠가 시간이 넉넉해지면...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면... 경제적인 걱정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를 미래의 어느 날로 미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꾀가에 단호하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드리는 작은 기도 한 줄, 지금 나누는 따뜻한 복음 한마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선교 헌금이 미래를 향한 놀라운 씨앗이 됩니다.

간증: 순종이 만든 놀라운 변화

1. 평생 순종으로 가장 행복해진 권사님의 고백

GSM 간사로 묵묵히 섬기던 한 권사님은 홀로 지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작은 후원으로 늘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 남은 인생도 오직 주님의 선교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작은 기도 하나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하와이 **YWAM**에서 **Bible Storytelling** 훈련을 받고, 지금은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매일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이 가장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2. 존 황 운영이사님의 작은 헌신이 만든 기적

처음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존 황 운영이사님은 작은 한 구좌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놀랍게 축복하셨고, 그는 마침내 **100구좌**, **200구좌**로 헌신을 늘려나갔습니다. 그의 온전한 헌신 덕분에 **GSM**은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선교 헌금 전액을 선교사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업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거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순종의 발자취: 역사를 바꾼 작은 한 걸음

- 아브라함은 익숙한 고향과 정든 친척을 떠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 모세는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순종의 문턱을 넘어서는 작은 용기

- 은퇴 후에도 작은 정성을 모아 매달 이름 모를 선교사님 한 분과 따뜻한 마음으로 결연하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 빠듯한 아르바이트비에서 작은 부분을 떼어 묵묵히 선교를 후원하는 이름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서툰 글씨로 선교사님께 응원 의 편지를 써 보내는 따뜻한 마음의 주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고 소박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붙들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묵상과 적용: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나요?

- 나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 마음 한편에 '선교는 언젠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 오늘, 내가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나요?
-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교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 선교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내딛는 작은 믿음의 발걸음임을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주님,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 오늘의 실천

-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선교적 행동 하나를 찾아 실천해 보세요. (예: 선교사를 위해 1분 기도하기,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작은 헌금하기 등)
- '지금 여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 읽어보며 도전을 받으세요.
- 나의 나이, 상황, 부족한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 가족이나 소그룹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즉각 순종 챌린지'를 해보고,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제 12 장. 한 구좌의 기적,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 마태복음 19:14

"작은 사랑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 마더 테레사

당신에게 100달러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커피 몇 잔 값, 한 번의 외식 비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이 작은 금액이 한 가정의 생계, 한 아이의 미래, 한 교회의 희망이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뀝니다.

GSM이 진행하는 1:1 동역 선교의 한 구좌 100달러는 단순한 후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생명줄이자 사랑의 다리이며, 가장 절실한 곳에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한 구좌 100달러가 바꾸는 현실

-  깨끗한 물 제공: 정수 필터나 물탱크로 1,000~2,000리터의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  식량 지원: 한 가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한두 달을 버틸 수 있는 기본 식량을 제공합니다.
-  교육 기회: 한 명의 학생에게 한 달간의 등록금과 교복, 또는 미래를 꿈꾸는

- 10~20명의 아이에게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  의료 후원: 치료제, 백신, 비타민 등으로 **50~100명**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  복음 전파: 현지어 성경 인쇄와 교회 임대료 지원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게 돕습니다.

선교지의 경제에서 **100**달러의 위력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25~5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100**달러는 두세 달치 생계비가 되며, 작은 상점 창업의 귀한 종잣돈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재봉틀 하나를 구매해 생계를 잇거나, 길거리 음식 노점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기적의 사례들

- 방글라데시: **5명**의 아이가 **1**년간 사용할 학용품 지원으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게 합니다.
- 케냐 농촌: 태양광 랜턴 **5~10**개로 어둠 속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빛을 선물합니다.
- 필리핀 산지: 교회 건축 자재의 **10%** 지원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의 후원이 곧 복음의 손길입니다

1:1 동역선교의 **100**달러는 복음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이며, 선교사의 영적 전쟁을 지지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이었어요." 이 고백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적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 단 한 구좌의 후원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절망에서 벗어나 빛으로 바뀝니다.
- 당신의 따뜻한 결단은 세상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되어, 빛이 달지 않던 곳까지 환히 비춥니다.
- 당신은 한 명의 선교사와 함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GSM은 이 놀라운 동역의 축복 속에서, 당신의 작은 손길이 만들어낼 위대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작은 나눔을 통해 전방의 선교사님과 평생 동역하는 '평생 선교가'로 살아가는 축복이 바로 당신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수많은 영혼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 거룩한 동참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맺는 글 - 함께 만든 기적,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책장을 덮는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복음 앞에 기꺼이 무릎 꿇었던 어느 선교사의 뜨거운 눈물, 어둠 속에서도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이름 없는 후원자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말없이 사랑의 다리를 놓았던 중간자의 섬김...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영웅들만의 담대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하며 써 내려간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교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국경을 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멀리 떨어진 집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누군가는 뒤에서 든든한

지원과 격려의 손길로 마음을 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길에 함께 걸겠느냐?" 이사야서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가장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복음의 뜨거운 숨결을 느낀 여러분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한 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진심을 담아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 그리고 작지만 **GSM**과 함께 정기적인 후원을 결단해 보세요. 이 작은 발걸음이 바로 전방의 선교사님과 평생 동역하는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는 축복의 시작이며,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순종이, 열방을 살리고, 다음 세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한목자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낼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감시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함께 이룬 복음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아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선교지를 위한 중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태복음 24:14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9-20
이제, 우리가 읽어온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 협력 교회: 협력 교회가 많아지고, 파송교회가 절실한 선교사들과 결연을 위하여
- 부흥의 역사: 중보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위하여
- 전방, 후방 선교사를 위하여:
 - 필요 공급: 영적, 환경적, 재정적 필요가 공급되고,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다음 세대 훈련: 전방 선교사가 다음 세대 선교사를 세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 후원 지속: 후방 선교사의 가정과 사업이 축복받아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길 위하여
 - 협력 사역: 전방과 후방 선교사 간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효과적인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품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 헌신한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눈물과 땀 위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거나 지치고 낙심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동역자와 후원자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고립되지 않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와 사랑의 연결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소서. 또한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들—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선교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선교지를 품는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록 1. 선한목자선교회(GSM) 소개 및 특징

선한목자선교회(GSM)는 2002년, 고 황선규 목사님의 기도와 순종에서 시작된 국제 선교 공동체입니다. GSM은 선교사를 '전방', 후원자를 '후방',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중간 선교사(간사)'로 정의하여 세 겹 줄로 연결된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110개국에 걸쳐 1,000명 이상의 선교사와 1:1 동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 세계 중보기도자들과 후원자, 간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김경식 목사가 국제대표로, 이현 목사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한국 대표는 김일영 목사, 한국 사무국장은 임수미 간사입니다. 이들은 국내외 스태프들과 함께 복음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끄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GSM의 핵심 가치

- **GSM의 선교 모델:** 전방(선교사), 후방(후원자), 중간(간사)의 '세 겹 줄' 사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주요 사역 항목:** 1:1 동역선교 연결, 중간 선교사 결연, 세계 선교중보기도회, 선교 콘텐츠 제작, 110개국 파송 등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 **참여 방법:** 후원자 등록, 중간 선교사(간사)로 섬기기, 기도 동역자로 동참하기 등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 www.gsm1.org / gsm3003@gmail.com

GSM 선교회의 11가지 주요 특징

- **후원금 100% 선교사 전달:** 후원금 전액을 행정비 없이 선교사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매월 정확한 선교비 지급:** 선교사가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매달 초 빠짐없이 지급합니다.
- **자비량 스태프의 헌신:** 모든 간사와 스태프는 사비를 들여 자원봉사로 사역을

- 감당합니다.
- **1:1 동역 선교:** 후원자와 선교사가 기도와 편지로 교제하며 동역하는 깊은 관계를 지향합니다.
- 소액 후원의 큰 가치: 한 구좌(100불) 10만 원 이하의 헌신도 필요한 곳에 연결되어 귀하게 사용됩니다.
- 맞춤형 동역 연결: 기도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선교사에게 꼭 맞는 후원자를 연결합니다.
- 다양한 선교 현장 지원: 교회·병원 건축, 신학교 운영, 우물 파기 등 실제적 필요를 후방과 연결합니다.
- 선교사 간 나눔 실천: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다른 선교사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 **1:1 동역 선교 세미나:**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부흥하도록 세미나를 통해 도전과 전환을 이끕니다.
- 파송 교회 연결 지원: 파송 교회를 찾는 선교사에게 지역 교회를 연결해 후방과 전방을 묶습니다.
- 전 세계 중보기도 공동체: 세계 곳곳의 중보자들과 함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연합을 세워갑니다.

GSM은 오늘도 '선교는 함께 만드는 기적'이라는 믿음 안에서, 후방과 전방, 중간을 하나로 잇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한 걸음이 복음의 기적이 됩니다.

부록 2.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1:1 동역 선교

1. '평생 선교사'라는 놀라운 가능성,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선교'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만의 헌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1:1 동역 선교**는 바로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시합니다. 거창한 헌신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동역 선교**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으로 맺어지는 살아있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2. **1:1 동역 선교, 어떻게 시작될까요?** **1:1 동역 선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지구 반대편의 선교사님과 손잡고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가정, 구역, 목장 단위로 한 선교사와 결연하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습니다.
3. **1:1 동역 선교가 가진 특별한 힘**
 - 선교사님과의 진심 어린 관계
 - 낯선 땅에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
 - 사역 보고를 통한 보람과 기쁨
 - 직접 선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 강력한 기도의 연결고리
4.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유
 - 적합한 선교사 연결
 - 꾸준한 후원금 전달 시스템
 - 100% 선교사 전달
 - 현장 방문을 통한 위로와 필요 파악
 - 중보 기도 and 소통 플랫폼 운영
 - 갑작스러운 중단 시 대체 후원 연결
 - 선교지 방문 통한 경험적 선교 열정 강화
5. 교회 선교부와는 또 다른 특별함 개인적 관계와 교제를 통해 더욱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선교가 가능하며, GSM은 이 연결이 안전하게 지속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선교사-후원자-GSM이 하나 되어 감동적인 동역을 이룹니다.
6. 우리 교회에 어떻게 뿌리내릴까요? 이 소중한 사역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심고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음 부록에서 제시합니다.

부록 3. 1:1 동역 선교, 우리 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제 아이디어

1. 말씀과 간증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예배 시간이나 선교 집회에서 1:1 동역 선교의 성경적 기반과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엽니다.
2. 소그룹 단위로 자연스럽게 참여목장, 구역, 셀 모임 단위로 한 선교사와 연결하여 기도와 후원을 이어가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선교 결연 캠페인과 박람회 개최'1:1 동역 선교 결연 주일' 또는 정기적인 선교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성도들이 직접 접하고 동역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4. 교회가 중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선교부나 당회가 GSM처럼 선교사와 성도 가정 또는 개인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돕는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소통과 기도의 통로 활성화카카오톡, 이메일, 주보 등을 통해 선교사와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중보기도가 생활화되도록 돕습니다.
6.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선교주일학교나 청소년부도 선교사님과 결연하여 편지, 그림, 기도카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7. 전담 리더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교회 내 선교 간사를 세워 전체 흐름을 관리하고, 선교 응답과 간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동기를 유지합니다.
8.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1:1 동역 선교를 통해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계 선교의 큰 그림 속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 GSM 팀과 함께하는 전교인 1:1 동역 세미나1:1 동역 선교의 비전을 전 교회에 공유하기 위해, 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GSM 선교회 팀을 초청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1:1 동역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말씀과 실제 사례, 실천적 안내를 통해 성도들의 선교 참여를 촉진하고, 교회 안에 선교적 문화를 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GSM 선교회 후원자 간증: 사랑으로 엮여가는 아름다운 동역 이야기

GSM 선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때로는 잔잔한 감동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우리 마음을 적십니다. 이 간증집에는 이름 없이 빛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사실, GSM 안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의 작고 큰 간증들을 모두 담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간증집에 미처 소개되지 못한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섬김은 하늘에 상급으로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하나님의 선교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기록입니다. 이 간증들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나눔과 동역의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1. 기도의 동역: 선교의 숨은 뿌리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 뜨거운 기도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시애틀의 한 권사님: "몸이 불편해도 기도의 자리는 지킵니다"
 - 몸이 불편한 날에도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매달 GSM 세계 선교 중보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시애틀의 한 권사님. 결연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손으로 적고, 단톡방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새벽 기도로 동역하는 그 모습은 진한 감동을 줍니다. 이름 없는 기도자들의 눈물과 헌신은, 선교의 숨은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 간증은 당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2. 물질의 헌신: 사랑으로 드러진 옥합

하나님의 선교는 물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장로님: "역경 속에서도 후원을 늘린 놀라운 믿음"
 -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과 아들의 백혈병이라는 이중의 고난 속에서도, 타코마의 한 장로님은 놀라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3구좌의 후원으로 30여 명의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던 장로님은 어려움 중에도 후원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골수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준 삶, 그것이 바로 선교 동역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장로님의 삶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요?
- 이름 없는 후원자: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시기, LA의 한 무명 후원자께서 선교회에 봉투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남미 지역 50명의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그분의 헌금은 선교지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하고, 깊고, 놀랍습니다.
 -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드리는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진 작은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 한 간사님의 뜨거운 눈물: "제발 멈추지 말아 주세요..."
 - 선교사님과 후원자님을 연결하는 간사님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깊은 헌신입니다. 어느 날,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한 간사님은 수화기 너머로 애타게 말했습니다. "제발... 멈추지 말아 주세요." 울먹이는 간사님의 진심에 후원자님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 감정보다 더 큰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본부 간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덕분에, 1:1 동역 선교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간증에서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후원자의 결단을 이끌어냈을까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선교의 끈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 무명 후원자: "선교사님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 어느 날, 운전 중이던 한 후원자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의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의 후원금을 선교사님의 가정에 전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무명의 후원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선교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간증을 통해 어떤 실천을 다짐하게 되셨나요?
- 한 은퇴 목사님: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은혜, 이제는 선교로 보답합니다"
 - 목회 현장을 은퇴한 후, 이 목사님은 소소한 꿈들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GSM 황선규 목사님을 만나 인도와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존경과 회개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퇴 연금과 생활비의 절반을 선교사님을 위해 드리기로 작정하고 평생 실천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선교 후원의 기쁨을 간증하며 후방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고, 사모님은 남편의 뜻을 이어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선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후반전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당신의 삶에서 선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 한 장로님: "눈물로 읽는 선교편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첫사랑"
 - 어느 날, 연로하신 이 장로님께서 떨리는 음성으로 GSM에서 보내주는 1:1 결연 선교사님들의 소식에 눈물이 나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어느새 21구좌의 선교 결연을 맺고 21명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계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첫사랑의 은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 김 집사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미국 LA의 김 집사님은 GSM을 통해 1:1로 결연된 중남미 선교사님들의 긴박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선교지 성도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직접 식료품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와 의논하여 중남미 3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나눔은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었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선교지를 다시 일으키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결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간증이 당신에게 어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기회를 보여주나요?

3. 삶의 헌신: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

선교는 단순히 물질의 후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 시애틀의 한 장로님 부부: "삶으로 드리는 헌신 - 선교사들을 위한 따뜻한 환대"
 - 매년 6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GSM 세계 선교대회. 이때마다 호텔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 부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객실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지친 선교사님들이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환대는 장로님 부부의 호텔에서 시작됩니다. 그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복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실천이 됩니다. 이들의 성김은 후원이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헌신임을 보여주는 귀한 본이 됩니다.

-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진정한 환대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4. 어느 후방 동역자의 헌신 이야기

- 나의 '0원' 기적: 선교사님과 함께 쓰는 구원의 드라마

GSM 선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열정을 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땅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 답답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멀리 선교지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해 주실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 깨달음은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힘 달는 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후방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 때로는 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이 '0원'으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작은 드림을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셨고,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은혜와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주셨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발걸음에 힘이 되고, 그 걸음을 따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더없이 큰 감사와 감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GSM을 통해 선교사님들과 함께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음에 제 가슴은 오늘도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5. 하늘의 동역자, 그 짧고 깊은 발걸음

- 고 황금옥 권사님의 생전 고백을 기억하며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 고 황금옥 권사님. 이 글은 그분이 살아 생전, GSM 선교회와 함께했던 짧지만 깊은 후방 동역의 시간을 회상하며 남긴 간증입니다. 말씀과 사역의 감동 속에서 한 후방 선교사로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하늘 소망을 붙들었던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일대일 동역 선교 후원에 대해 소개받았습니다. 선교가 어떤 사역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던 제게, 그 제안은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후원의 마음’으로 시작한 동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청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35년 넘게 섬겨온 영암유치원 원장직에서 은퇴하던 해, 저는 처음으로 GSM 불가리아 대륙별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막 마친 때였기에, 이번 선교대회 일정 중에 포함된 성지순례 여정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말씀 속 바울의 여정을 직접 밟아가며, 복음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에 동참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내 평생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 뻔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깊고도 감사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 직후, 갑작스러운 건강검진 결과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럽고 막막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준비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선교대회에서 받은 은혜는 투병의 시간 동안 제 믿음을 지탱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후방에서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병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신 황금옥 권사님. GSM 선교회를 만난 이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후방에서 선교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짧았지만 깊고 강렬했던 동역의 발걸음이었고, 그분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후방 선교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증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여전히 GSM 선교회와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깊게, 뜨겁게, 주님과 함께 걸으셨다면 그 길은 영원히 남을 복음의 발자국입니다.”

6. 시골 목회자의 GSM 선교 간증

작은 것들로 이룬 하나님의 큰 동역

오랫동안 시골에서 목회하며, **선교**는 늘 멀고 특별한 이들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습니다. 제 삶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GSM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1:1 동역**이라는 말도 생소했고, 후방 선교사라는 개념도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뭔가 울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선교의 길을 조용히 열어두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동역의 기쁨: 선교가 스며든 삶

GSM 동역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선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제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명이 됐죠.

카카오톡으로 전해져 오는 선교지의 소식, 고단한 시골 목회의 한복판에서 듣는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부르심에 귀를 막을 수는 없겠구나...”

넉넉지 않은 작은 사례비에서 후원금을 떼어 시작한 후방 선교사로서의 길. 그 길은 제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약정한 선교 후원금을 채 보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넘은 하나님의 격려였고, 제 목회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였습니다.

선교의 본질: 교회를 세우신 이유

GSM과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시골 교회의 작은 예배당도, 아프리카 오지의 천막 교회도 하나님의 눈엔 동일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제 목회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며 이런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믿은 목회자였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7. GSM 순회선교사로 산다는 것

“방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의미

주님께서 저를 GSM 선교회의 순회선교사로 세워주신 그 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임명장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가끔 방문하는 사역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은 제게 이 사명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을 선교현장으로 바꾸는 특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깃든 자리, 선교 현장

기회가 될 때마다 참여한 GSM의 단기선교와 대륙별 선교대회는 저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만난 각국의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살아 있는 교재이자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어떤 교재에도 담겨있지 않은 복음의 진리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랑의 수고로 사역하시는 전방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매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헌신으로 빛어지는 후방의 기적

선교지를 함께 방문하며 만난 후방 선교사님들의 헌신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아껴가며 매달 후원하시는 것도 벅찰 텐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를 듣고는 주저 없이 믿음으로 채우는 그 모습은 저에게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헌신이 선교지에 심겨진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들을 저는 이곳저곳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순회선교사의 사명: 가교(架橋)가 되는 길

그런 현장을 방문하며 저는 질문하게 됩니다. “순회선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새겨주셨습니다. 후방의 후원자들에게는 전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리고, 전방의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동역의 손길을 전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찬양,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정신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초롱초롱한 어린이들이 불러준 찬양: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네.”

이 노래는 제 마음에 새겨진 **GSM** 선교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작은 시작, 작은 헌신, 작은 걸음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믿음.

🙌 함께 가는 길, 함께 이루는 사명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길, **GSM**과 함께 걷는 순회선교사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제가 밟 밟는 모든 땅이 복음의 현장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전방과 후방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 그 여정에 **GSM**과 함께할 수 있음이 저에겐 그 무엇보다도 큰 감사입니다.

8. 옥합을 깨뜨린 후원자

– 한 권사님의 기적 같은 헌신

그날도 **GSM** 선교회의 한 후방선교사는 전화기를 들고 후원자님들과의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전화 화면에 뜨더니 **“목소리가 반가운 권사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후원을 중단하셨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선교회님, 저 이제 다시 후원 시작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 “선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권사님은 몇 해 전, 친한 교회 지인의 소개로 **GSM** 후원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보내시던 가운데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모든 생활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후원은 잠시 멈추셨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 선교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긴 투병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신 그분은 가장 먼저 **GSM** 선교회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싶으셨던 그 마음, 그 발걸음이 선교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꿈속에서 옥합을 깨뜨리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은 꿈속에서 **“너의 옥합을 깨뜨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 그 말씀은 그분의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침 손에 쥐고 있던 700만 원, 자신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주저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원래 주님 돈이에요. 제가 가질 게 아니에요. 네팔에 계신 전훈재 선교사님께 전부 보내주세요.”

후방선교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보내시겠습니까?”라고 물었지만, 그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원을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700만 원은 네팔 선교지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로도 권사님의 후원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원 안내 통화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채워주시는지” 기쁨으로 간증해 주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내가 없어도 선교는 계속되겠지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후원이 아닌, 선교사를 향한 진짜 사랑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신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암을 이기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첫 발걸음을 선교로 내딛으신 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자신의 ‘옥합’을 기꺼이 갠 그 마음.

그리고 지금도 GSM과 함께하며 **“후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삶.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 옥합을 깨뜨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만남, 생명으로 엮이는 동역의 시간: 발칸반도 선교대회 현장의 감동

GSM 선한 목자선교회는 매년 대륙별 선교대회를 통해 후원자와 선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21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발칸반도 GSM 1:1 동역 선교대회”는 미주 지역에서 온 49명의 후원자와 발칸 지역에서 헌신하는 30여 명의 선교사가 함께 모여 뜨거운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서로의 삶과 사역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의 뜨거운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소감을 통해, 복음의 불씨가 어떻게 살아 숨 쉬고 동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들을 읽는 당신의 마음에도 선교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벅찬 재충전의 시간: 선교사님들의 고백

신미순 선교사 (폴란드):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위로와 새 힘을 얻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크로아티아 선교대회 초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방 선교사들의 간증과 보고는 마치 오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간증을 들으며 저도 함께 울고 웃었죠. 후방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후원과 섬김은 주님의 손길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큰 위로와 새 힘을 얻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방대식 선교사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사랑의 교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저에게 이번 GSM 발칸반도 선교대회는 사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서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는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후방 선교사님들의 보이지 않는 중보와 후원은 마치 하나님의 따뜻한 품처럼 느껴졌고, 그 사랑을 잇는 중간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튼튼한 다리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한 후원자님이 제 손을 잡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했고,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진 선교사 (알바니아): "천국 같은 동역의 잔치,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GSM의 1:1 동역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 그 자체입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만난 전방, 후방, 중간 선교사들과의 시간은 마치 천국의 잔치처럼 기쁨과 사랑으로 넘쳤습니다. 한 후원자님이 손수 준비한 따뜻한 선물을 건네주시며 "이건 작은 마음이에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창조주의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선교 보고 시간에는 동료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고, 후방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응원과 중간 선교사님들의 섬김은 제 사역에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사역지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박철규 선교사 (우크라이나):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이번 대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후원자님의 기도 속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방 선교사들의 간증은 제 사역의 동기를 새롭게 했고, 후방 선교사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은 저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제 안에 강하게 울렸습니다. 동료 선교사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방, 중간, 후방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권경숙 선교사 (루마니아): "엠마오 길처럼 눈을 뜨게 한 동역의 다리"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처음 참여한 GSM 선교대회는 조심스러움으로 시작했지만, 곧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경험처럼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낯선 얼굴로 시작된 만남이 가족 같은 교제로 이어졌고, 전방 선교사들의 간증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 후원자님의 따뜻한 미소와 "계속 기도할게요"라는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간 선교사님들의 브릿지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튼튼한 다리였고, 이제 저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후방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동역의 길을 걸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강민 선교사 (터키): "천국 같은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이번 대회는 마치 천국에 온 듯한 평안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평소 통증 때문에 늘 사용하던 입마개를 3일간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후방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환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후원자님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늘 기억해요"라며 건네준 손편지는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간증과 중간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저에게 새 힘을 주었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얼굴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은영 선교사 (터키): "사랑과 기도로 채워진 은혜의 축제!" Merhaba! 터키에서 사역하는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축제였습니다. 후방 선교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으며,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도에 눈물이 났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의 간증은 제게 도전과 용기를 주었고, 중간 선교사님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었고, 머무시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진호 선교사 (코소보): "가족 재회처럼 기뻐던 새 힘의 교제" 코소보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한국과 미국에서 먼 길을 오신 후방 선교사님들의 따뜻한 환대와 손수 준비한 선물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동유럽 전방 선교사들과의 교제는 마치 가족이 재회한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한 후원자님의 ***"코소보를 위해 늘 기도해요"***라는 말에 눈물이 고였고, 동료 선교사들의 간증은 제 사역에 새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대회는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고, 다시 뵈 날을 기대하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형민 사역자 (튀르키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냉수 같은 만남"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최형민입니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전방, 후방, 중간 선교사들과의 교제는 제게 큰 도전과 회복을 주었습니다. 한 후원자님께서 나눈 ***"당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는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준 GSM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 사역지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김경희 선교사 (우크라이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의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김경희 선교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후원자님의 손을 잡고 나눈 기도는 마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15분간의 짧지만 깊은 선교 보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후방과 중간 선교사님들의 밝은 미소는 제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누린 이 귀한 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맺는 말: 복음의 불씨를 이어가는 동역의 함성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GSM 발칸반도 선교대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전방, 후방, 중간 선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불씨를 키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번의 섬김, 한 줄의 간증이 모여 세상 곳곳에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소감들을 읽는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역의 불씨가 타올라, 다음 선교대회에는 그 감격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SM 선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히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된 여정에 동참하여, 복음의 빛을 함께 전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GSM 1:1 동역 선교사들의 간증

1)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여정: GSM과 함께 (00 선교사 왕 부장)

선교의 길은 늘 순탄하지않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복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안의 경고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중국인 영혼을 향한 저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17**년간 중국인 타문화 선교사 훈련 사역에 헌신하며, **58**명의 귀한 선교사를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 무슬림 국가, 불교 국가 등 복음이 필요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에 대한 기대로 벅차옵니다.

선교의 여정에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겪었던 상처와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힘든 모습을 보며 **10**여 년간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던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교훈으로 바뀌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보람은 제가 훈련했던 중국인 선교사 제자들이 각 나라에 파송되어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이자 선물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태국에서 추방당한 후, 저는 제주도에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들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클볼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 교회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GSM 선교회는 응원팀이 아닌 전우, 삶의 든든한 동역자

선교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전우'의 존재입니다. 저에게 **GSM**은 바로 그런 전우이자 가족입니다. 수많은 단기 선교팀이 오고 가는 가운데, **GSM**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응원팀이 아니라, 저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저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입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GSM**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GSM**의 동역자로, 후원자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GSM**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왕부장

서충만 선교사 (튀르키예 00 지역 선교사)

예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도,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희망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 없는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며, 언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꿈꿨죠.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 사역을 하던 중, 주님은 저희 가정을 튀르키예로 인도하셨습니다.

2011년, 파송받기 **2**년 전 중동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낯설고 두렵던 중동 땅을 처음 밟은 아내는 이슬람의 강력한 장벽에 가려진 영혼들을 보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주님은 정말 저희 가정을 튀르키예 이즈미르(옛 서머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및 캠퍼스 선교를 꿈꿨지만, 튀르키예 정착 **1**년 만에 '카르샤카 교회'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임 사역자 추방 후에는 제가 교회를 맡아 예배, 심방, 훈련, 전도 등 전반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지금은 현지 사역자와 함께 리더십 이양을 준비하며 귀한 현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 선교 전문가의 비전을 위해 이즈미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선교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8,500**만 인구 중 **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옛 소아시아 지역으로 초대교회의 숨결이 남아있지만, 이 땅의 투르크 민족은 대규모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은 민족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현지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떠나고, 리더십 이양 과정에서 또다시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며 큰 상처와 슬픔을 겪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의 귀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튀르키예에 파송된 첫 시점부터 **GSM**은 10년 넘게 저희와 함께 동역해주셨습니다. **GSM**은 단순한 선교 단체 그 이상입니다. 저희에게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GSM** 후방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교에의 헌신, 전방 선교사를 향한 환대를 저희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GSM**의 다양한 선교 대회들을 통해 수많은 전후방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GSM**의 든든한 동역은 저희 사역에 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GSM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귀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 속에서 저희는 오늘도 튀르키예 땅에서 복음의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고난 속 싹튼 믿음,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 (캄보디아, 김은모 선교사)

대학생 시절 금식 수련회 중, 찬양을 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 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고, 이후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여정은 지금, 캄보디아의 땅 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은 사역: 치유와 교육

캄보디아에서는 가난 때문에 병을 참고,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아픈 이들을 위한 치료 사역과 청소년 장학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몸이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0여 건의 수술과 수많은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36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지 학업만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 눈물의 기도가 이룬 열매

혼자 신앙생활 하던 제 유년 시절처럼, 이곳 아이들 중에도 가족에게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 아이가 교회에 간다고 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날 기도회는 눈물과 방언이 넘치는 성령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아이들이 사역자와 리더로 성장했고,

그들이 자신의 부모를 전도해 지금은 노인과 장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캄보디아에선 보기 드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 GSM은 가족이자 진정한 동역자

GSM은 제게 단순한 후원 네트워크가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멀리 있어도 늘 가까운 마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역자”**로서

선교사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성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GSM은 후방의 헌신과 전방의 사역이 기도로 연결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동역 안에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선교 여정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수와 함께 흐르는 사랑: 물 한 그릇 선교회(권종승선교사)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생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험한 곳에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물도, 전기도, 화장실도, 그리고 예수님도 없는 험한 땅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끗한 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실 물과 함께 전하는 영생의 복음: 물 한 그릇 선교회

저는 학부에서 토목공학,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했고, 이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전공을 따라 선교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미전도 종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저희 선교회의 이름은 **'물 한 그릇 선교회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입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는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접촉점'입니다. 미전도 종족일수록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때, 영생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을 우물 및 정수 장치 설치, 펌프 수리 및 설치, 위생 교육, 변소 설치, 빗물 이용, 지하 탐사, 수질 검사 등 다양한 핵심 사역을 통해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식수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시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일하심

선교지에서 깨끗한 물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 12시간씩 물을 길어 다니고, 학교에 물이 없어 학생들이 직접 더러운 강물을 떠오는 오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사역은 참으로 복되고 보람된 사역입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드릴도 깨져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우물을 파던 곳이 바로 동네 무당의 집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동네 공터에 우물을 팠는데, 하필 그곳이 무당의 영향 아래에 있던 것입니다. 무당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며 영적인 방해로 하고 있었나 봅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야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GSM: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나의 안식처, 사랑의 가족

선한목자선교회(**GSM**)는 저에게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힘들 때 기대는 언덕이고, 지치고 피곤할 때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집입니다. 갈 곳이 없을 때도, 잘 곳이 없을 때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이부자리를 펴주는 곳입니다. 방이 없으면 안방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고, 배고프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언제든지 대접받는 곳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도 편히 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저의 가족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 같은 곳이 바로 **GSM**입니다. **GSM**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미전도 종족에게 생명수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기적: 알바니아, 복음의 씨앗을 심다 (김재진선교사)

1998년, 41살의 나이에 다니던 직장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사직하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목회를 생각하며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지만, 2000년 WEC 국제선교회 대표 선교사님의 채플 설교는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이 확신을 따라 WEC에서 훈련받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4년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중, 알바니아 선교를 제안받았습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 50년 공산정권의 독재, 사회적 불안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암울한 현실... 자료를 살피고 한 달간 기도할수록, 오히려 알바니아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제게 부어졌습니다. 기도와 몇 가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알바니아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7년 3월, 50세의 나이에 알바니아에 입국하여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열매들: 교회 개척과 삶의 변화

2010년, 무슬림 공동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며 저희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와 영어 교실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만났고, 이를 계기로 2011년 유초등부와 청소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한 가정 방문으로 신뢰를 쌓아갔고, 2014년 여성 성경공부 모임에 이어 2020년에는 마침내 주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요일 청소년 모임, 토요일 유초등부 모임, 목요일 큐티 모임, 그리고 주일 예배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심방을 통한 전도와 양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지역이라 가난 퇴치와 경제적 자립 지원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성도님이 애지중지하던 젓소가 죽어 절망에 빠졌을 때, 한 후원자님을 통해 새 젓소를 선물했습니다. 그분의 기뻐하던 모습은 저에게 큰 보람이었고, 이를 계기로 젓소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현재 13마리의 젓소와 6마리의 염소를 보급하며 가난한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긴급 구호 식량 공급도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 중 하나는 5년 전, 첫 주일 예배에 10여 명이 모였던 작은 시작입니다.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 1,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릴 만큼 부흥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다음 발을 내디딘다"는 성도들의 고백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저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무슬림 공동체에서 복음 전파가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길을 여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GSM: 나의 든든한 후방, 사랑의 손길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선한목자선교회(GSM)**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처음 만난 GSM은 저의 '시골 어머니' 또는 '누이' 같은 존재입니다. 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반겨주는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저에게 든든함 그 자체입니다. 마치 전방에서 고독하게 싸우는 선교사에게 주먹밥을 부지런히 가져다주는

후방의 사랑의 손길과 같습니다.

GSM은 단순한 재정과 기도의 지원을 넘어섭니다. 전방의 선교 사역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돕습니다. 하지만 결코 전방 사역자인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곁에서 묵묵히 밀어주며 소신껏 일하도록 맡겨주는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GSM**의 든든한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에, 저는 알바니아에서 이처럼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GSM**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적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비된 기적의 여정: 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 (이광보선교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소명을 받아 준비된 길을 걸지만, 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의류 사업으로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무렵, **IMF**의 파도가 덮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작은 채소가게를 시작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하며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시장을 향하던 길, 어릴 적 할머니가 평생 부르시던 찬송가 **511**장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운전을 할 수 없어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하루는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 집사는 사명자야, 사명의 길을 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를 열었고, 놀랍게도 모두가 한목소리로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미 개혁 신학교 신대원에 입학, 3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일주일간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은 일꾼을 어디에 사용하시려 부르셨나요?" 울부짖는 제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버려지고 잊혀지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소멸해 가는 이과수 부근 과라니 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그 즉시 **18**시간을 버스 타고 달려 과라니 부족 마을로 들어갔고, 오늘날까지 **30**여 년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밀림 속 복음의 씨앗: 기적을 만드는 사역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부근, 미시오네스 주정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오 과라니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션'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들은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 밀림에서 태어나 밀림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가련한 부족입니다.

저희 사역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전합니다. 이들의 추장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온 마을 부족이 함께 원하는 경우에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묵상과 찬양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민학교 수업이 진행되며, 마을 회관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룹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을마다 교회가 먼저 세워지면 관할 시에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55**개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며 엘도라도 시골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구걸하는 과라니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구걸하느냐?"고 가르치자, 한 달 만에 그 모든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 구걸하는 과라니 어린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렵게 건축한 교회 의자가 다음 주 예배 때 사라진 일입니다. 추장은 장마로 땀감이 없어 의자를 땀감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할 말을 잃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장마철마다 또 의자가 사라질까 가슴 졸이며 기도합니다. "항상 땀감을 준비하는 과라니 형제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GSM: 굶주린 배를 채우는 사랑, 지속되는 동역의 손길

선한목자선교회(**GSM**)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황선규 목사님과 사모님의 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포소 아술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밤 문화' 속에서 모든 현지 교회는 밤에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 오전 10시 예배를 약속했습니다. 과라니 부족 형제자매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채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3개월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황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후원해 주셨고, 그 한 구좌의 후원으로 과라니 형제자매들이 네 번의 점심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GSM은 저의 선교 사역 초기부터 이 시대에 버려지고 잊혀지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소멸하는 인디오 과라니 부족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준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주 푸른샘 장로교회 이광보 계연순 선교사

복음의 부르심, 기적의 동역

— 캄보디아 양준석 선교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질문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학 1학년 때 마태복음 24:14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자력공학이라는 안정된 미래를 내려놓고 신학교로 향했고, 2006년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2008년, 프놈펜 외곽 껌뽕뽕 마을에서 전기·수도도 없던 곳에 침례요한교회를 개척했고, 이어 요셉중앙학교를 세워 교육과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 학교는 2023년 현지 리더에게 사역을 이양하며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뽕뽕레앙 마을에서 새 교회와 유치원 설립, '66EE 전략'(어린이·청소년 복음화)으로 2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중앙학교의 시작도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기도한 직후, 땅 매각 소식과 동시에 현금이 도착했고,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고된 길이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더 깊은 위로를 얻었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GSM:** 나의 전우, 요셉의 창고

사역 중 한대희 선교사님을 통해 **GSM**을 만났습니다. **GSM**은 단순한 후원 단체가 아니라,

- ‘오병이어의 선교회’: 선교사 간 상호 후원을 통해 함께 채우고 나누며
- ‘삼겹줄 선교회’: 월례 기도모임으로 진정한 동역의 기도를 이어가고
- ‘요셉의 창고’: 교파를 넘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든든한 공동체입니다.

GSM이 함께했기에 저희는 1기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2기 사역의 문을 힘차게 열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여정에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